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6년 3월 15일

제 21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아나운서클럽 25주년 회보 창간 5주년 기념 정기총회

임 회장 인사말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야 하듯 우리 함께 아나운서클럽을 빛냅시다'

3월 2일 여의도 열린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올해 첫 모임은 풍성한 잔치였다.

(사) 한국아나운서클럽의 2016년 정기총회가 창립 25주년 및 회보 발간 5주년 축하의 자리로 20명 가까운 현역 등 7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린'에서 열렸다.

총회는 임국희 회장의 인사말, 김상준 감사의 2015년 감사 보고, 황인우 편집장 공로패 수여, 박민정 사무총장의 2016년 활동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국희 회장은 "미남미녀와 함께하니 설렌다. 티끌 없이 그 자세 그대로, 한 치도 빈틈없는 사고방식 그대로 선배님들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내시기 바란다.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 함께 아나운서클럽을 빛내자."라고 말했다.

황 고문 '클럽 100주년 때까지 나간다고 전해라'

회보 만드느라 수고한 편집위원 대표해 황인우 편집장에게 공로패 수여

4월 11일 경남 창원 고택 1박 2일 무료 여행 예정

김상준 감사는 "친목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클럽은 후배 아나운서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클럽회보 제작·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요 예산은 연회비와 특별 후원금, 광고 수주로 충당한다. 작년 한 해도 클럽 운영에서 제반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안 사실인데, 회장님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하셨다. 그리고 회보 발간부터 클럽 운영까지 수고한 편집위원들에게도 고맙다."라고 보고했다.

임 회장은 그 동안 애써온 김규홍, 이혜옥, 황량, 박민정, 채영신, 이형균 편집위원을 대표해 황인우 편집장에게 공로패와 위로금을 수여했다. 황 편집장은 "5년간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 들으며 클럽회보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열심히 도와주고 배려해주신 선배님들 덕분이다."라며 감격해했다.

클럽 창립 25주년의 시발점 황우겸 고문은 축사에서 "내 인생철학은 '친구다. 미수米壽에 다리도 불편한 내



정기총회에는 18명의 현역 등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우애를 나누었다.

가 운전해 박종세, 맹관영 두 분 모시고 나온다. 요즘 백세 인생이 유행이니 '나도 아나운서클럽 100주년 때까지 나간다'고 전해라."라고 말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2016년 활동계획에서 "4월 중 회장님의 주선으로 경남 창원 고택古宅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 11일과 12일, 1박 2일로 50명까지 무료 숙박이 가능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일 년에 두 차례 후배들에게 우수 프로그램상과 모범 아나운서상을 시상하고 있다. 6월 '황금메아리상' 시상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서 추천해 달라. 그리고 황 고문님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주소록 발간을 준비 중이니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도중에 휠체어를 타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임택근 고문의 건배사 후 이어진 2부에서는 '아나운서클럽의 역사와 함께한' 김규홍 부회장의 살뜰한 소개말도 곁들여졌다.

회보에 '발음이야기'를 연재하는 이규향 회원을 비롯해 처음 참석한 부산의 김병래 시인과 전주동신교회 주건국 목사, 낮익은 대구의 이후재 시인, 대전 우송대 이종태 교수, 제주MBC 김창옥 사장 등 지역에서 온 회원들에겐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1950년대 입사한 KBS 원로 여성 아나운서 김인숙, 윤영중, 문복순 회원과 MBC 전직 여성 아나운서·PD 모임인 초록회의 김채영, 노영인, 반주원, 박효연(중순), 안주희, 남궁미 회원은 남다른 우애를 과시했다.

CBS 김은영 부장은 "협회장에서 부장으로 승진, 선배들을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 신입사원과 함께 왔다."라며 이강민, 이봉규 아나운서의 노래를 선사했고, 아나운서연합회 윤지영 회장은 "선배님들보다 더 잘하는 건 오직 발로 뛰고 몸으로 하는 것, 연말에 선배님들 모시고 아나운서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규은 시인이 2008년 <아나운서 임택근> 출판 기념회 초대장을 받고 쓴 축시 낭송 후 8년 만에 임 고문에게 헌정하는 등 정기총회는 "오늘 모임은 끝날 수 없다. '필리버스터' 하자."는 이계진 부회장의 말처럼 아나운서 세계의 우애가 빛나는 가운데 아쉽게 막을 내렸다.

<2, 3면 하단에 계속>

축시

희망에게

김규은(전 KBS)

배냇짓 아장 걸음 지나
어엿한 발자국 5살 우리 희망아
또렷한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며
깨달아 담아야 할
어깨의 가방이 몸보다 크구나
말로써 뜻을 새기어
만방에 전하는 일 사명이리니
저 많은 사람(人)들의 말(言) 중에
너의 말, 진실로 믿음(信)이 가는 것은
공평한 어조 햇살이 듯 달빛이 듯
속속들이 비추어 주는 까닭임을 안다
지금도 도처의 가슴 가슴마다,
긴 철조망 너머 옥죄는 마음에도,
떠도는 난민의 어린 눈망울에도,
그대의 말 빛이 되나니 길이 되나니
희망아 우리들의 희망아
혈행 맑고 분명한 너의 목소리
때로는 목젓 아린 위로와 축복까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대들의 가슴에서 발아한
새순 같은 언어임을 잊지 말아라
희망아, 우리들의 희망아.



해당黨 金圭銀 김규은金圭銀
1963년~1969년 KBS 아나운서
1991년 『월간문학』 신인상
1994년 시집 『병과리의 노래(마을)』 출간
현재 한국문인협회 남북문학교류위원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아나운서연합회 뷰티 세미나 개최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KBS 윤지영)의 신년 세미나가 1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tbs 교통방송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아나운서연합회의 2015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또 2월 24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하얏트호텔에서 아모레 후원으로 뷰티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적인 발전으로 화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개 방송사 30여 명의 여자 아나운서가 참가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白堊陶窯

www.damsbowl.com

031 321 2776



회보 발간 5주년 특집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품격 있는 방송언어 실천에 구심점 되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아나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1년 3월 창간되어 어느새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의 중심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

큼 아름답고 바른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아나운서클럽이 우리말 지키이로서 든든하게 자리매김해 왔듯이 앞으로도 한층 더 품격 있는 방송언어 실천에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직종인 만큼 책임도 크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아나운서클럽이 회보 발간 5주년을 맞이한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회보 발간을 시작한 하지만 1~2년 뒤에 대개 중단하게 되는데 이 일을 꾸준히 추진하여 5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입니다.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이 직종이 사회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용모는 물론 옷차림, 태도 말씀

씨가 모두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이란 책임도 남달리 크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표준말의 수호자가 아나운서 아닙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본디 서울사람이 몇 살지도 않는데다가 교양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니 표준말은 아나운서들을 통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미주 방송인과 아나운서클럽 교류 원해



민병국
미주방송인협회 회장

회보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들은 고국 방송인의 활약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아나운서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김동건 고문님께서 건재하심을 매주 <가요무대>를 보면서 알고 있고, 임국희 회장님은 제가 열렬한 팬이었기에 더욱 반갑습니다. 남가주 170여 명을 비롯해 300여

명의 미주 방송인들은 LA 주변만 해도 20여 개의 TV나 RADIO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한국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9년부터 육군 일병의 신분으로 군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1975년에 도미했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본국의 아나운서클럽 등과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서 회보 펼쳐볼 때마다 가슴 설레



위진록 (전 KBS)

회보 발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전 66년간의 외국생활 중 한때 타블로이드판 동네신문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황인우 편집장을 비롯해 회보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미국에서 회보를 펼쳐볼 때면 69년 전 KBS 마이크 앞에 앉기 시작한 때의 일들이 마음 저리게 생각나며, 회보에 등장하는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후배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끊임없는 발전을 빕니다.

회보 덕분에 선후배와 마법 같은 신비한 교감 경험



오미영 (전 KBS)
가천대 신방과 교수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은 어떠한 인연도 '아나운서' 명칭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인연을 능가할만한 특별한 인연은 없다. 비록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선·후배와도 마법 같은 신비한 교감을 경험한다. 아나운서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아나운서클럽이 회보를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안부를 전하고

가족 의식을 일깨워준 덕택이다. 한국아나운서클럽 회보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꾀어일 마다 않고 회보를 만드는데 기여해오신 모든 분들, 특히 김규홍·박민정 선배님과 황인우 동지에게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선배들처럼 우리말의 수호자 역할 다할 터



유애리 (KBS)
한국방송 아나운서실장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현역 아나운서들이 열심히 방송하고 한국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나운서 선배님들과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방송의 최종 전달자로서 그리고 우리말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께서 저희 후배 아나운서들의 방송을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시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아나운서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나운서 위상 높이며 성공적인 매체로 자리 잡아



신동호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국장

회보 발간 5주년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는 아나운서들의 터전을 한층 넓게 확장시키며 성공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아나운서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아나운서를 향한 깊은 애정과 기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수한 고비를 헤치고 변화를

거듭하며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여온 선배님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꿈꾸는 희망찬 새 봄을 맞아, 클럽회보 발간 5주년이 단순한 기념 차원을 넘어 아나운서와 방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성숙한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홀함 없는 알찬 기사 방송문화 진흥에 기여



신용철 (SBS)
아나운서팀장

지난 5년 동안 선후배, 동료들의 소식을 모으고 방송 역사를 전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셨겠습니까?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발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뉴스부터 특집기사, 원로 선배님들 초대식, 방송가 소식, 우리말 다듬기에 이어진 이규형 선배님의 발음 이야기, 회원 동정, 화제의 인물 인

터뷰 기사 줄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는 기사는 아나운서들의 부지런함과 세심한 성정은 물론 예술적 재능까지 대변하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방송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로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나운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면에서 계속> 2016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직함 생략)

- 강서은(KBS) 강영숙(전 MBC) 김관동(KBS) 김규은(전 KBS) 김규홍(전 KBS) 김동건(전 KBS) 김미정(MBC) 김병래(전 KBS) 김병훈(tbs) 김상준(전 KBS) 김선근(KBS) 김은영(CBS) 김인숙(전 KBS) 김재익(전 KBS) 김준우(OBS) 김창욱(전 MBC) 김채영(전 MBC) 남궁미(전 MBC) 전 MBC PD 초록희 노영인 맹관영(전 KBS) 문복순(전 KBS) 박민정(전 MBC) 박영웅(전 KBS) 박중세(전 TBC) 박찬숙(전 KBS) 반주원(전 MBC) 박효언(전 MBC) 배우선(전 KBS) 성선경(전 DBS) 손석기(전 SBS) 송옥석(febe) 송현식(전 KBS) 안주희(전 MBC) 원종배(전 KBS) 유명미(SBS) 유지철(KBS) 유지현(전 SBS) 유진영(OBS) 윤영중(전 KBS) 윤지영(KBS) 이강민(CBS) 이계진(전 SBS) 이규형(전 KBS) 이병희(SBS) 이보길(전 TBC) 이봉규(CBS) 이성화(전 TBC) 이숙영(전 KBS) 이세진(전 KBS) 「춘추동방 송」 이장춘 이종태(전 KBS) 이형균(전 MBC) 이혜옥(전 KBS) 이후재(전 KBS) 임국희(전 MBC) 임주완(전 MBC) 임택근(전 MBC) 부부 임화숙(전 KBS) 전영우(전 KBS) 전우백(전 KBS) 전인석(KBS) 전찬희(국방FM) 정도영(전 KBS) 정연호(전 MBC) 주건국(전 KBS) 차기정(전 CBS) 채영신(전 KBS) 최만린(전 KBS) 홍승택(전 KBS) 하지은(MBC) 황량(전 KBS) 황우겸(전 KBS) 황인우(전 KBS)

다음 정례모임은 오는 6월 7일 (화) 오후 6시 30분, 열빈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식순인 감사보고를 진행하는 김상준 감사



박민정 사무총장의 활동계획 발표에 귀 기울이는 회원들



뜻밖의 선물인 공로패를 받고 기뻐한 황인우 편집장

회보 발간 5주년 특집



발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리마, 큰 기러기 같은 선배들 본받겠다



홍원기 (OBS) 경인TV 아나운서팀장

아나운서로 살아온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선배님들의 찬란한 업적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기 반홍(附驥馮)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천리마 같은, 큰 기러기 같은 선배님들을 본받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분이 되며 후배들을 끌어주시는 클럽 선배님들을 지난 5년간 지면

으로 뵈 때마다, 늘 후배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며 진심으로 챙겨 주시는 다정한 연락을 받을 때마다 따뜻한 선배님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봄소식 같은 아나운서클럽 회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때론 후배들을 위한 쓴 소리와 애정 어린 조언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길이 되신 선배들 떠올리며 힘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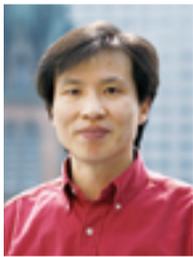


김병훈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부장

'길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저 많은 길들과 후배들이 걸어가야 할, 아마도 더 많은 길들을. 걸어가다 문득, 이 세상 나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에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함에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의 길, 아니 이미 스스로 길이 되신 선배님들을 떠올리며 지친 마음을

다독입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내딛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오솔길 이든 탄탄대로든, 혹여 자갈길이나 진창길이라 해도 언제나 여기, 따스한 우리의 봄 내음이 묻어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럽회보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연의 길이, 앞으로도 무궁무진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님들 계셔서 든든합니다



조한구 (PBC) 평화방송 아나운서부장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5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동안 애쓰신 선배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또 한 늘 후배 아나운서를 생각하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회보를 통하여 알아갑니다. 임국희 회장님을 비롯한 아나운서

클럽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그 길, 잘 따를 수 있도록 잘 배우고 몸으로 익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인사 전하면서 모쪼록 선배님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희는 든든합니다.

후배들에게 자극과 귀감 되는 회보



윤지영 (KBS)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회보 발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나운서연합회 회장으로, 20년차 현역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어느 때보다 아나운서의 위상과 미래에 대해 고민과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배님들의 활동과 오피니언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아나운서클럽회보는 후배들에게 자극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아나운서들의 다양한 활약상과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늘 현역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멘토로 큰 힘 되어주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멋진 활동, 멋진 인생!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이 넘치는 회보 자부심 일깨워줘



김은영 (CBS) 기독교방송 아나운서부장

아나운서클럽회보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방송사에서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음도 행복한 일이지만, 선후배의 끈끈한 정으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연합의 기쁨 또한 이곳 한국아나운서클럽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2011년 3월의 창간호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를 받아 보는 즐거움이 올해로 5년이 되었다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아나운서클럽과 편집부에 축하

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방송 현장 구석구석 달아 있는 따스한 눈길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정이 넘치는 클럽회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사의 소식과 회원들의 동정을 통해 아나운서로서 자부심도 일깨워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후배님들의 사람살이도 전해주시고 아나운서로서 자리를 오롯이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축하의 글을 드립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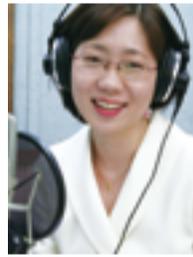


한경은 (tebc) 극동방송 편성국장

남북통로 전면폐쇄, N포 세대, 부모학대로 숨진 자녀... 계절은 봄을 재촉하지만 세상 바람은 여전히 춥고 무섭다. 말쟁이로 살아가는 나는, 이 냉랭한 사회 속에 온기가 담긴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오늘도 마이크 앞에 선다. "난 뼈에 금이 가도 멈출 수 없었

다.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습관처럼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꿈이 아픈 게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발레리나 강수진의 고백이다. 세상을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꿈을 꾸자. 내 뼈에 금이 가더라도 나는 아나운서니까!

불가의 '시절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아나운서들



최은경 (BBS) 불교방송 부장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호에 실린 '우리의 목표' 마지막 구절은 제게 목격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 때문이었나 봅니다. 새삼 아나운서로 맺은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불가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모든 유, 무형의 만남에는 다 때가 있고 인연법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안에서 만나는 분들과의 인연이 제겐 그러합니다.

그 회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축하하고 아파하고, 이제는 내 선·후배, 내 동료라는 끈끈함까지... 모두가 시절인연인 게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아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귀한 인연을 선사해주신 (사)한국아나운서클럽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함과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송구함을 전합니다. 회보 발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분기 정례모임은 6월 7일 (화) 오후 6시 30분 열빈에서 열립니다. 방송 잘하는 남녀 아나운서에게 황금메아리상을 시상하는 자리이니 만큼 많이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순 김재익 임택근 윤영중 김인숙 회원



변함없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니 기뻐요



박찬숙 부회장 이성화 홍승택 성선경 부회장 황량 회원



원로부터 신입사원까지 기념 촬영



늘 좌중을 즐겁게 하는 김규홍 이계진 부회장



새 얼굴 낯익은 얼굴 한자리에 모여



새로 위촉된 유지현 (우측) 편집위원과 함께한 편집진



김재영 안주희 박효연 (중순) 남궁미 회원

중계탑

신출내기 아나운서의 울산 정착기

작년 6월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5년 이상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수차례의 실패를 맛보았던 저는 극동방송 공채를 끝으로 아나운서 도전을 마치고 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라고 했던가요. 마지막 도전에서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나운서의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입사 후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발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그 두 도시 중 한 곳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 발 한 번 디터 보지 못한 낯설고 물산 땅 '울산'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울산 정착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란 도시와 천천히 친해질 여유는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한 해 최대의 행사인 '숲속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행사인 만큼 막내인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현장 리포터부터 스튜디오 아나운서, 인터뷰 진행자,

내레이션 녹음에 이르기까지 저는 아나운서로서 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실습했습니다.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지만, 저는 단 시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울산 땅과 급속도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나 싶었지만, 9월에는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에서는 12시간 연속 생방송을 기획하고 있었고, 울산지사도 이 중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었기에 울산지사에서는 배짱 두둑하게 기획안을 올렸고,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해 저희는 또 다시 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울산역과 구청, 리조트, 여행사 등을 오가며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울산 곳곳에 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공업도시의 면모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동시에 가진 울산만의 독특한 매력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1월이 되었고,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저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심지어 저의 신분조차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여성과 결혼을 해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울산극동방송에서는 세미나와 특집 방송, 생중계,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신나게 방송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렐루야 3시>라는 정규 생방송도 맡아 열심히 선배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익숙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곳 울산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제 마음속에는 어느덧 울산에 대한 애정이 한 가득 쌓여있음을 느낍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배울 것이 가득하지만, 저는 이곳 울산 생활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신출내기 아나운서의 울산 정착기는 즐겁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 / 극동방송 울산 장찬희

방 | 송 | 가 | 소 | 식



스포츠팀 리우올림픽 대비 세미나 전국대의원대회 사업계획 등 논의



리우 올림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스포츠 캐스터들의 역량을 키우고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2일

까지 KBS 본관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축구 한준희, 체조 여홍철, 유도 김병주, 사격 김일환, 육상 김경선, 펜싱 오경석, 양궁 이은경, 리듬체조 김윤희 해설위원을 비롯한 KBS 스포츠팀이 올림픽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한편 KBS 아나운서들의 1년 행보를 결정하는 상반기 전국 대의원 대회가 2월 27일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열렸다.

임수민 아나운서 연세언론인상 수상

임수민 아나운서가 2016연세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임 아나운서는 3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연세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사와 함께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전주 김태은 <대통령을 웃긴 여자> 출간



김태은 아나운서가 2015년 10월, 자기 관리, 인간관계 비결부터 방송 일화를 담은 <대통령을 웃긴 여자 (더클)>를 펴냈다.

1994년 전주방송국에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15년째 <뉴스광장> 앵커, <김태은의 가요뱅크> 제작 및 진행뿐만 아니라 <아침마당 전복>, 주말 <9시 뉴스>, <경제 가마솥> 등을 맡고 있다.

새해 부분개편 서인 이재은 차예린 발탁

새해를 맞아 MBC 아나운서들의 프로그램이 일부 조정되었다. 서인 아나운서가 <출발, 비디오 여행>의 새 진행자로 발탁되었고, 3월부터 6월까지 출산휴가를 낸 김초롱 아나운서 뒤를 이어 이재은 아나운서가 <생방송 오늘저녁>의 안주인이 되었다. 차예린 아나운서는 일요일 아침 7시, 낮 12시, 3시 30분 뉴스를 진행한다.

강재형 아나운서 문자사진 전시회 개최

팔롱 아터테인(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기획초대전으로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문자나 말을 추상적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Textogram' 작품을 선보였다.



1987년 입사, 미디어언어연구소를 운영하는 우리말 전문가 강 아나운서는 2011년 첫 번째 개인전 <happy Sky 전>을 연 이후 문자를 이미지화한 'Textogram' 작가로 활동 중이다.

김정근 아나운서 대학원 연극 무대에서

김정근 아나운서가 지난 해 동국대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에 진학해 2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루퍼트 부르크의 <리투아니아>에서 <손님>역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역을 맡았다.

강다솜 <그렇다면, 참 좋겠다> 출간

<잠 못드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DJ 강다솜 아나운서가 올 1월에 수필집 <그렇다면, 참 좋겠다>를 출간했다.



강 아나운서는 "DJ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 싶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새 사훈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

SBS가 2016년에 시청률, 수익성, 화제성으로 1등 SBS를 달성하고 전 시간대, 전 연령대에서 시청률 1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신년 목표를 밝혔다.

윤석민 SBS 부회장은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새로운 사훈과 'TV를 넘어 세상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이라는 비전은 안주하는 조직은 이를 수 없는 목표"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리우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고 UHD 방송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지만 도전의 DNA로 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부천사 최기환 3000만 원 나눔 실천

2011년부터 <희망TV SBS>를 진행한 최기환 아나운서가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김주우 아나운서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최 아나운서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3년간 3000만 원을 기부했고 <희망TV>에서 인연을 맺은 4명의 소녀에게 매달 후원금도 보내고 있다.

박선영,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 맡아



박선영 아나운서가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의 새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뉴스 앵커의 경험을 살려 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잘 다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은경 미국 생활 마치고 복귀

차장급 박은경 아나운서가 SBS 드라마 PD인 남편 이명우 차장, 딸과 함께 미국에서 6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고 아나운서실에 복귀했다.





음악FM 특집 <유지수의 올댓재즈> '재즈가 들린다' 방송통신위원회 교양부문상 수상

CBS 음악FM <유지수의 올댓재즈(정우식 PD)>의 25주년 기념 특집 '재즈가 들린다'가 방송통신위원회 교양부문상을 받게 되었다. 10회에 걸친 재즈 이론과 악기별 특성, 재즈 스탠다드 탐구 등의 주제로 내용을 꾸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은영 아나운서부장 임명 최명진 심기식 승진 이동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서 김은영 아나운서가 부장으로 승진했고, 최명진, 심기식 아나운서가 정든 아나운서부를 떠났다. 최명진 아나운서는 현재 CBS의 역점 사업인 시네마사업 부장으로, 심기식 아나운서는 선교사업부장으로 승진 이동하였다.

신입 이강민 이봉규 수습 교육

2016년 1월 1일자로 거의 5년 만에 34기 신입 아나운서가 들어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강민, 이봉규 아나운서는 서강대 출신으로 각각 경영과 경제를 전공하였다. 현재 수습교육 중이며 4, 5월 중에 정식 직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강민 이봉규

신임대표에 MBC 출신 정찬형

4년간 재임한 성경환 대표에 이어, 2015년 12월 18일부터 정찬형 전 MBC 라디오본부장이 교통방송 대표직을 맡고 있다.



신임 정 대표는 1982년 MBC에 입사, <배철수의 음악캠프>, <김미화의 세계는, 우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을 기획, 연출했다.

상명대와 교육 협력 MOU 체결

tbs는 아나운서부 주도하에 상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교육, 문화, 방송, 연구, 정보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방송 통신 미디어 및 교육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3월 14일 봄 프로그램 개편

3월 14일 tbsFM 봄 개편으로 아나운서부가 더욱 바빠졌다.

나선홍 아나운서는 개그우먼 김미화(주중), 개그우먼 이수지(주말)와 함께 매일 오후 4~6시를 책임진다. 월~금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최지은 아나운서가 맡았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달콤한 밤>을 새롭게 진행한다.

신입 이가희 주말 방송 투입

3개월에 걸친 신입사원 공채에서 출중한 실력을 발휘한 이가희 아나운서가 선발되었다. 교육을 마치고 3월 개편과 함께 <기본 좋은 토요일, 이가희입니다>를 맡았다.



2월 1일자로 조직 개편 단행

지난해 7월 윤정식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이 2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기존 마케팅국이 미디어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정책 TF국이 신설되는 등 대외적인 수익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장급 인사의 대거 교체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팎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설 특집 11시간 생방송 진행

2월 5일, 설 특집 11시간 생방송 <새해 복음福音 많이 받으세요>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설 명절의 나눔과 감사를 기억하는 풍성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창사60주년 특집공개방송 마련



창사 60주년을 맞아 60개 크리스천 기업체, 방송 가족과 함께하는 특집 공개방송 <60주년 좋을씨고, 우리회사 좋을씨고>가 2월 2일 오후 5시 극동아트홀에서 열렸다.

송정미의 미니 콘서트, 비기독교인 직원들을 위한 깜짝 응원 이벤트 등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시간이었다.

지승신 아나운서 자료심의부 발령

1990년 입사해 <성서 못자리>, <FM 음악공감> 등을 진행한 지승신 아나운서가 지난 1월 자료심의부로 발령받았다. 이에 따라 <FM 음악공감>은 김부궁, <우리말 바른말>의 구성은 김지현 아나운서가 맡았다.

<군중의 시간> 팟캐스트로도 방송

평화방송 라디오 <군중의 시간>이 '아들에게 보내는 음성편지' 등 따뜻한 내용으로 설 특집 <제 아들이 확실합니다!>를 방송했다.



예비군이 진행한다는 기치 아래 신의식 아나운서가 제작, 김지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군중의 시간>은 PBC 라디오 앱과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 있다.

공덕주 모임 곧 2만 회원 돌파 불교 세계화 위한 기반 구축

불교방송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 가입자 수가 출범 석 달 만에 2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불교방송은 만공회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매달 한 차례 전법

발원 9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참 좋은 오늘입니다>를 편성하고 있다.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주요 진행을 맡아 동참을 권선하는 가운데 청취자뿐 아니라 불교계와 방송계 인사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BBS 불교방송은 만공회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 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강미정 아나운서 4월부터 복귀



강미정 아나운서가 1년 간 일반휴직을 마치고 4월 1일 복귀한다.

강 아나운서는 <꿈꾸는 U>, <생방송 OBS> 등의 프로그램에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진행으로 사랑받아왔다.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11

바른말살천동시민협회의 제공

정계에 실세實勢 정치인과 무늬만의 정치인이 있듯이, 언어에도 '꽃'에서 '꽃' 같이 뜻을 나타내는 실사實辭와 '이'와 같은 조사나 어미의 허사虛辭가 있다. 대등한 관계의 실사와 실사가 만나면 두 낱말을 존중하여 끊어 읽게 되어 '잡+자리:잡을 자는 자리[잡자리]', '꽃+잎:꽃의 잎[꽃잎]'처럼 다양한 변이음이 되며, 종속관계의 실사가 허사로 이어지면 조사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발음하게 되어 '꽃'이 [꼬치]가 된다. 또한 국어에서는 '고가高架[고가]/古家[고가]/高價[고개]'처럼 예사소리와 된소리에 의해 의미가 분화된다.

'예사소리/된소리'의 예

교제술交際術/교제 술[酒][교제술], 대수代數[대:수]/臺數[대수](자동차 ~), 문과文科[~에 급제]/[문과][~대학], 문자文字[공자 앞에 ~ 쓰다]/[문짜](상형 ~), 상권上卷[상:권]/商圈[상권](~이 형성되다), 삼일장三日葬/三日場[사밀장](영월의 ~),

수수水素[수소](수컷의 소), 연줄(因緣)/연 줄[연줄](연의 줄), 장기長期[장기]/將棋[장:기]/長技[장끼](수평은 장끼), 폰돈(이번 선거에서 ~)/[폰:폰](~ 모아 목돈), 화병花瓶/火病[화:병], 외래어의 경우 'Band'가 연중의 필요성에 의해 [밴드](고무~/헤어~/[밴드](~마스터)로 되었다.

연음법칙/절음법칙의 예

ㄱ) 연음 : 흙이[흙기], 닭알[달글], 넓은[널븐], 산새[산새], 물고기[물꼬기], 당고개[당고개], 연음[여늘], 열 병[열:병](음료수 ~), 전前+주週[전주], 전주全州/前奏[전주], 전역全域[전역](서울 ~), 전역轉役[전:역](군에서 ~) '온라인[온나인], 헨리[헨니], 비비안리[비비안니]'(L'순행동화)

ㄴ) 절음 : 공권+력(합성어)[공권녁], 값+어치[가버치], 맛+없다[마딤따], 옷+오르다[오도르다], 열熱+병病[열병](장티프스), 불+법佛法:붓다의 말씀[불법]/不法:법에 어긋나다[불법], 시간+대臺[시간

대], 지진+대地震臺[지진대], 물+약물략], 서울+역[서울역], 학+여울[학녀울], 태+릉[태릉], 선+릉[선릉](역행 자음동화의 신래[실라]처럼 [설릉]으로 착각함), 불+고기:불에 구운 고기[불고기], 1+1+9[일릴구], 원+룸[원룸], 산+새:살아있는 새[산새], 산+세山勢:산의 형세:[산세], 전+량全量:전체의 분량[전량], 전+라全裸[전나], 전前+역驛[전녁](~에서 출발), 음운+론音韻論[음문], 휘발+유揮發油[휘발유], 홀+대忽待:푸대접[홀대], 흙+위[호귀], 흔히 관건[견], 참고서[꼬], 교과서[짜], 창고[꼬]로 된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 글의 이론과 무관하며, 일본어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비표준발음이다.

전기는 전기풍로처럼 나선형 철사에 전류가 흐르게 하여 1단계 붉은색 후에 2단계 노란색을 띄면서 '열熱'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에디슨은 고심 끝에 필라멘트(Filament)를 발명, 여기에 전기를 보

내 백주白晝/대낮과 같은 백색白色的 열熱 전구電球/백열白熱 전구[백열전구], 즉 전깃불을 탄생시켰다. 지금은 백열등에 비해 1/5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LED 시대가 열렸다. 필자는 오랫동안 '백열白熱[백열]'이 아닌 [백열]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다. 1920년 최초의 '조선어사전' 편찬 당시 영남지역 편집위원이 촬영[촬영]을 [촬영]으로 발음하듯이, 잘못 표기하였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숙제로 삼아오면서 과학도(?)가 되어 몇 년 만에 이끌어낸 결론이다. 이와 같은 유래를 아는 언중言衆이 거의 없으므로 복수발음인 [백열/백열]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처럼 절음법칙은 어원을 알아야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어 발음의 원칙이다.





회 | 원 | 동 | 정

작년에 이어 임궁수 음악회 진행



채영신 (전 KBS)
작년 12월 제2회 임궁수 가곡발표회에 이어 3월 12일 오후 5시 KBS 아트홀에서 열린 임궁수 봄맞이 음악회 사회를 보았다. 임궁수가곡사랑회 주최, 춘하추동방송 후원으로 열린 신춘음악회에는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했다.

MBC <워킹맘 육아대디>로 연기 도전



오정연 (전 KBS)
4월 말 방송 예정인 MBC 일일연속극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연기를 선보인다. 2004년 청주 MBC를 거쳐 2006년 KBS 32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오 회원은 <6시 내 고향> <체험, 삶의 현장> 등을 진행하다 2015년 퇴사했다.

EBS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



최윤영 (행복한 교육세상)
최현정 (책으로 행복한 12시)
지승현 이지에 (라이브토크 부모)
2월 29일 EBS FM 봄 개편을 맞아 최윤영 회원이 오후 5시 생방송 교육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최현정 회원은 문지에 회원 후임으로 정오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책으로 행복한 12시>를 맡았다.



EBS TV 오전 9시 40분 <라이브토크 - 부모>는 지승현 회원이 월요일 '속터져도 내자식', 수요일 '부모마음 랭킹쇼', 이지에 회원이 화요일 '특강' 부모 필살기'를 진행한다.

O tvN 드라마톡 <금지된 사랑> 진행



황수경 (전 KBS)
2월 20일부터 모델 변정수와 함께 토요일 오후 4시와 밤 11시 O tvN, 토요일 밤 11시 30분 tvN에서 방송되는 드라마톡 <금지된 사랑>을 진행한다. 황 회원은 국회방송 <황수경이 만난 사람>도 진행하고 있다.

<나만의 언어로 당당하게 삶을 대하라> 출간



박근아 (전 JTV)
2013년 <부끄러움을 버리고 부러움을 사다>에 이어 <나만의 언어로 당당하게 삶을 대하라(함께BOOKS)>를 펴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JTV 전주방송에서 활약한 박 회원은 와인드 컴퍼니 대표로 '박근아의 토크 플라워' 소통 기획 강연 등을 하고 있다.

뮤직 토크 콘서트 전문 사회자로 활약



김명숙 (전 KBS)
드림공화국 손진기 대표와 함께 뮤직 토크 콘서트의 전문 사회자로 활약하고 있다. 1월 13일 대치2동문화센터에서 전현희 전관 의원의 북콘서트, 1월 22일 상명대학교 아트홀에서 JNU글로벌의 김대영 회장이 출연한 '꿈을 만드는 콘서트'를 진행했다.

다섯 번째 자선행사 '박지윤바자회' 개최



박지윤 (전 KBS)
3월 4일 오전 10시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 4층에서 제5회 '박지윤바자회'를 개최했다. 박 회원은 2014년 12월부터 자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소아병 환자, 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 어린이 등을 위해 기부해왔다.

MBC사우회 한문동호회서 명심보감 강의



권혁화 (전 MBC)
3월부터 화요일마다 MBC사우회에서 기초한문강의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다. 2011년 MBC 사우회에 한문동호회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한문을 배우기 시작, 2014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에서 3년 과정의 한문번역 과정을 이수중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성장시켜준다는 교학상장 敎學相長의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다. 권 회원은 1984년부터 5년간 아나운서실 근무 후 홍보실을 거쳐 20년간 MBC아카데미에서 근무하다 2014년 퇴직했다.

MBC사우회 신임 이사로 선임



이현우 (전 MBC)
2월 26일 MBC사우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이 회원은 1977년 입사해 <MBC인기가요 퍼레이드> <푸른신호등>을 진행했으며 2008년 정년퇴직했으며 현재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로 경기대에 출강 중이다. 한편 임주완 부회장, 양진수 이사는 연임되었다.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라디오진행상 수상



유영재 (전 CBS)
2월 18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진행상을 받았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CBS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탁월한 선곡과 진행능력을 인정받은 유 회원은 SBS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103.5MHz 오후 4시 5분~6시)를 제작 진행하며 중년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클럽 회원들 임택근 고문 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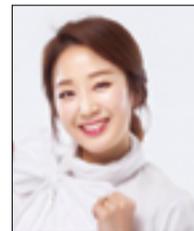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이 임택근 고문에게 송년 인사를 하고자 송파구노인요양센터를 방문했다. 임국희 회장을 비롯해 차인태·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김채영·황인우 회원 등 6명은 2015년 12월 29일 오전 11시, 송파구 장지동 자택 근처 노인요양센터에서 거주하는 임택근 고문을 문병했다. 임 회장은 '더욱 건강하셔서 좋아하시는 후배들 곁에 오래 함께 계시고, 올해엔 휠체어를 벗어나 지팡이 짚고서라도 걸으시라'고 기원했고, 임 고문은 사모님과 함께 클럽 후배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김채영 회원과 함께 진행한 <임택근 모닝쇼> 등 추억담을 나누었다. 이 날 요양센터 손지영 원장이 임국희 회장과 차인태 부회장에게 팬이라며 사인을 부탁하자, 차 부회장은 '아나운서의 사표이며 큰 어른인 임택근 고문을 잘 살펴드려서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손 편지로 감사를 표시했다.

제3시집 <새날은 새들이 쫓다> 출간



이후재 (전 KBS)
2015년 12월, 소박한 심상과 천진한 감성, 따뜻한 유머가 담긴 71편의 시를 모아 세 번째 시집 <새날은 새들이 쫓다(학이사)>를 출간했다. 1971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PD로 전직, 원주방송국장 역임한 이 회원은 현재 (사) 한국언론인협회 이사로 2006년 '스토리문학'으로 등단 후 <땀 흘리는 산>과 <거북 바위가 묻는다>를 펴낸 바 있다.

TV조선 <연예가 X파일> 진행



김경화 (전 MBC)
2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조선 <연예가 X파일> MC를 맡았다. 김 회원은 2000년 입사해 <섹션TV 연예통신> <뽀뽀> <고향이 좋다> 등을 진행하다 2015년 퇴사했다.

2015년 12월 14일, 2016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2015 표준어추가결과' 발표

○ 복수 표준어로 인정 (4개)

- 마실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마실꾼·마실방·마실돌이·밤마실'도 표준어)
- 이쁘다 : "예쁘다와 함께 인정 (이쁘장스럽다·이쁘장스레·이쁘장하다·이쁘디이쁘다'도 표준어)
- 찰지다 : 사전에서 [차지다의 원말]로 풀이. (예문) 화단의 찰진 흙에 하얀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 ~고프다 :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예문)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양 울었다.

○ 복수 표준형 (2개)

- 말아/말아라/말아요 : 마/마라/마요
- 노랑네/동그랑네/조그랑네 : 노라네/동그라네/조그마네

○ 별도 표준어 (5개)

- 꼬리연 : 긴 꼬리를 단 연.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 의론議論 : 각자의 의견 제기, 또는 그런 의견. (의논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
- 이크 :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
- 잎새 :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임. (잎사귀 : 낱알의 잎, 주로 넓적한 잎을 이른다.)
- 푸르르다 : '푸르다'의 강조형.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 색처럼 밝고 선명하다.)

Zoom-in 인생학교 교장 손미나 (전 KBS) 회원

“나는 말쟁이지가 글쟁이, 언공인이며 경영인!”

2007년 퇴사 후 여행 작가 2014년 허핑턴포스트 편집인 2015년 '인생학교 서울' 교장으로 무한 변신 중

1972년생 여자가 경력만도 지면이 짝 찰 지경이니 이 글을 어찌 쓰나!

손미나는 고려대 서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공채 24기로 입사했다. <가족오락관> <도전! 지구탐험대> <도전! 골든벨> <KBS 뉴스 9> <생방송 세계는 지금> <사랑의 리퀘스트> 라디오 <손미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까지 보도, 교양, 오락을 망라하며 인기를 누렸다. 쉼 없는 삶이 계속되자 2004년 휴직을 신청하고 1년간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 기록이 2006년의 베스트셀러 <스페인 너는 자유다>이다.

2007년 퇴사 후 도쿄로 날아가 본격적인 여행 작가로서 2008년 <태양의 여행자>를 펴낸데 이어 200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탐험기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 2011년 소설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2013년엔 2009년부터 3년간의 파리 거주기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2015년엔 아버지를 여읜 상처를 치유하고자 떠난 페루 여행기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다. 또한 2014년에 인터넷 미디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인으로 발탁되어 주목을 끌더니, 2013년 설립한 손미나앤컴퍼니를 바탕으로 2015년 가을엔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인생 학교(The School of Life, http://www.ssac.company, 02-774-794) 서울 분교를 열었다.

지난 2월 27일 제주에서 했던 강연 제목처럼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고 있는 전방위 문화인 손미나 회원을 만나러 용산구 이태원의 인생학교를 찾았다. 글 / 황인우 (전 KBS) 편집장



이태원 주택가에 위치한 인생학교 서울 분교에서 창립자 알랭 드 보통과 함께한 손미나 교장

한 발짝 숨은 오래된 2층 주택을 개조한 학교가 매력적이다.

학교 자리를 물색할 때 전국 어디서나 오가기 쉽도록 교통에 중점을 두었지요. 용산구청 이면도로에 있는 오래된 주택의 느낌이 '이거다!' 싶었어요. 가정집 분위기에 알랭 드 보통도 아주 흡족해했지요.

알랭 드 보통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우리나라에서 알랭 드 보통의 책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여행의 기술> 등이 인기가 많잖아요? 2008년에 한 잡지의 인터뷰어로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가 영국 런던에서 인생학교를 준비할 때였는데, 그 후 파리, 암스테르담, 이스탄불, 베오그라드, 멜버른 등에 이어 10번째로 서울에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맡겠다고 나섰지요.

인생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 인생을 더 지혜롭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고 정서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을 따라가다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순수과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인생학교는 문화를 통해 감성 지능을 기르며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찾고, 자신의 속마음을 남들과 나누며 위로받는 '영혼의 짝질방' 같은 곳입니다.

철학적 깨달음과 실질적인 가르침이 필요할 텐데...

'일, 사랑 자아' 등 강의 주제가 다양합니다. 본교 수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교재도 번역하며 조정한 다음 적합한 강사를 찾아내 교수법을 익히고 강의에 임하게 하지요. '선택 잘 하는 법', '가슴 뛰는 직업을 찾는 법'은 제가 맡고요. '대화 잘 하는 법'은 최명화 현대자동차 마케팅전략실 상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은 최인아 전 제일기획 부사장,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은 박지호 <아레나 옴므 플러스> 편집장, '내 안의 리더십을 키우는 법'과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 것인가'는 <바른경영 아카데미> 김준희 대표,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법'은 출판인 이영미,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법'은 디자인 컬럼니스트 김신,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사

는 법'은 이강원 세계장신구박물관 관장, '자신감 있게 사는 법'은 백석대 관광학부 관광통역 교수, '차분함을 유지하는 법'은 하지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담당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남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작년 11월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3월 초에 확인해보니 1000명이 넘었더군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녁 7시 10분부터 10시까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데, 수강생 집단의 수준이 높고 만족도가 큼니다.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 자신감 고취 등은 물론 지향점이 같은 동료들 만나는 기쁨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 수강생의 후기를 보니, "수려한 강의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학생들, 밀물처럼 쏟아져오는 시각의 트임 속에서 내적 탄성이 연달아 올라왔다. 인생 주기에서 겪게 되는 고비마다 인생학교에서 배운 접근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고대해본다."라고 썼더라고요. 퍼스널 테라피가 필요하므로 타겟팅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펀딩 등 후원도 필요하지요.

'손미나'란 브랜드 가치가 참 대단한 것 같다.

인생학교도 콘텐츠 못지않게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합니다. 아나운서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하는 일의 좋은 열쇠가 되지요. 전 아나운서란 직업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단계 발전하고자 퇴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인 인생 이야기를 여행기에 담아내다 보니 독자들이 제 책을 좋아해주시더라고요.

<허핑턴 포스트> 편집인이 된 것도 제가 기자가 아니라 아나운서 출신이라 가능했어요. <허핑턴 포스트>가 있는 15개국 모두 여자가 편집장입니다. 인터넷 미디어는 감성적으로 와 닿아야 하기 때문이죠. 방송 앵커 출신으로 말과 글이 다 되고 영어가 가능한,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로 뽑는데, 제 경우는 아나운서 출신에 스페인어도 할 줄 한다는 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어요.

일인 브랜드 시대, 인지도는 엄청난 파워죠. 당장 효과

가 없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독심 있게 이끌고 가는 것, 좋은 아이디어보다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실을 다지다 보면 교양이 저절로 발산하는 법이지요. 서두르지 말고 회사에서 얻은 고급스런 이미지와 능력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후배들이 많은데, 간혹 소모적인 일에 재능을 허비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청주 어린이기자로 어린이 시간에 참여했었어요."하고 인사를 드렸었지요. 황인우 선배님이 1980년 라디오 생방송 <어린이시간>을 진행할 때, 아버지가 그 지역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라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할 때 어머니가 빠짐없이 녹음, 녹화해준 제 전담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1,000여 만 원의 거금이 들었지만, 귀중한 자산이지요. 단 배정받아 진행했던 라디오 뉴스를 녹음해두지 못 한 게 못내 아쉬워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KBS 제1라디오 <손미나의 여행노트(토 20:05~20:56)>를 진행하며, 팟캐스트 싸수다방(http://www.ssac.company/) DJ도 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이 나와 호응이 높은 편이예요. 제가 아나운서로서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 '짜증나서, 너무 천박해서 못 들겠다'는 말을 듣지 않으니 다행이지요.

손미나의 목표는?

오는 4월 3일, 알랭 드 보통이 서울에 와서 우리 한국인에 맞는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비즈니스 스쿨 개설 준비 등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재료를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이제 부엌을 준비하고 식탁을 잘 차려 함께 나누려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니 인간관계가 상하좌우로 너무 넓거든요.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저부터 마음 전하는 법을 연구해야겠고요. 건강하게 지내며 진실, 지적인 코드, 선한 의지로 아나운서에 대한 편견 없애고 후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림

고맙습니다

3월 10일까지 입금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임국희 (전 MBC) 1,000만 원



강영숙 (전 MBC) 20만 원



이후재 (전 KBS) 30만 원



김윤환 (전 KBS) 30만 원

축하합니다

- 허일후 (MBC) 3월 20일 (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MBC 동료 김지현 PD와 혼인
- 가애란 (KBS) 4월 2일 (토) 오전 11시 충남 태안성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경찰관과 혼인
- 최재영 (febc) 3월 26일 (토) 오후 6시 30분 더 베일리 하우스 논현점에서 연인과 혼인
- 박사임 (KBS) 2월 24일 득녀
- 장한솔 (febc) 2월 1일 득남
- 손석기 (전 SBS) 1월 24일 아들 규택 군 혼사

조의를 표합니다

- 전우벽 (전 KBS) 3월 7일 배우자상
- 이주복 (전 KBS) 3월 1일 장모상

한국아나운서클럽 창립 25주년 회보 창간 5주년 기념 특별 기고

클럽과 회보의 탄생 비밀 그리고 걸어온 길, 여기 다 있다

박민정 (전 MBC) 사무총장



‘선배 존경, 후배 사랑’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은 만날 때마다 강조한다. 또한 해병대 구호처럼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고 말한다.

연장자인 강찬선 선배를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아나운서동우회를 결성한 제2대 황우겸 회장님은 당시 김규홍 총무와 함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칭도 ‘아나운서클럽’으로 바꾸면서 서울이든 지역이든 퇴직한 아나운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도 변화시켰고 각 방송사 현역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연말에 시상한 ‘자랑스러운 후배상’, 지금의 ‘아나운서클럽상’은 선·후배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임택근 회장님으로 이어지며 클럽 회원 수는 계속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박중세

늘어나, 현재 350여 명의 퇴직자와 현역 아나운서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황 고문님과 김 부회장의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필자가 처음 클럽에 합류하게 된 건 전영우 회장님 때이다. 원종배 간사는 모임에서 사회도 보고 열심히 클럽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했다.

기억 하나:

내가 한참 프리랜서로 잘 나갈(?) 때였다. 프로그램 회의 도중 받은 전화-김규홍 모친상. 문자 기능도 메일도 없을 때였으니 일일이 전화로 알려야 했다. 100통 가까이 직접 전화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기억 둘:

스피치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신 존경하는 전영우 회장님, 어려서부터 전영우 아나운서의 <유쾌한 응접실> 팬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저술한 책도 여러 권 받았다. 지금까지도 매일 일기를 쓰시고 책을 내시며 아나운서의 품격을 높여주시는 분.

기억 셋:

박중세 회장님은 모임 전에 현역 실·국장들 꼭 불러 밥을 사주시며 다음 모임 날짜를 잡으셨다. 모임이 끝나면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따뜻한 목소리로 ‘수고했다’는 전화를 주셨다. 그즈음 <방송, 야구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회고록을 내셨는데, 전국의 500여 현역 아나운서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 참 자상하신 박중세 회장님

기억 넷:

‘똑같은 우리말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최만린 회장님의 스피치를 들을 때마다 느낀다. 고문님들께서 다음 회장을 맡으라고 하셨을 때 한참을 고사하시다 마지못해 승낙하신 모습이 아름답게 남아있다. ‘아나운서클럽상’ 상패도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 최만린 고문님 덕분에 헤이리 나들이를 여러 번 했다. 이탈리아 식당도 데리고 가시고, 헤이리에서 열리는 음악회와 전시회도 초대해주시고... ‘아나운서들 모임을 격조 있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로맨틱스트.

한국아나운서클럽을 사단법인으로 만들라는 당시 김동건 부회장의 엄명을 받들어 (그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네요.) 방송위원회 실무진이 하라는 대로 서류를 해 가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또 수정해라’ 하면 또 다시 수정하고, 실무진과 전화로 싸우기도 여러 번. ‘당신이 이렇게까지 사단법인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따지기도 여러 번... 결국 최만린 회장님과 함께 MBC 사장 출신 노성대 방송위원장 면담 후 성사되었다.

김동건 부회장은 ‘사단법인화 되면 후원금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며, 1억을 모아 후배들에게 상다운 상을 주도록 하자, 이것이야말로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지

름길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중중하셨다.

우리 때는 선배가 하려면 해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고생 고생해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아주고 ‘해냈다’ 했더니, 웬걸! 우리의 바람은 재단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니... 아직까지 후원금 세제 혜택은 안 되지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은 1년에 한 번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제출을 하며 사회적으로 신임 받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기억 다섯:

카리스마와 따뜻한 미소로 냉·온탕을 경험하게 해주신 Boss 김동건 회장님, 늘 바빠서서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아침 일찍 단답형으로 전화 드린다. 그런데 어느 날, 공정하지 못한 일



최만린

김동건

처리에 30분 넘게 전화로 나무라시며 눈물을 쏟게 하셨다. 항상 각 방송사, 또 회원 개개인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라고 하셨다. 이 일을 계기로 일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처음 클럽 회장에 취임하시어 아나운서 회원증 발급과 회비 문제 등 클럽 운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었다. 일반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바로 우리 아나운서클럽에서 해야 할 봉사

(사) 한국아나운서클럽의 간추린 역사

- 1950년대 후반 중앙방송국 시절 친목 모임 ‘동심회’ 후에 ‘청람회’로 개칭
- 1980년대 후반 강찬선 회장 ‘아나운서동우회’ 배덕환 간사-정경래 간사
- 1991년 제2대 황우겸 회장 ‘한국아나운서동우회’ 김규홍 간사
- 1996년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 김규홍 총무 이때부터 현역 아나운서들도 참여
- 1997년 제3대 임택근 회장, 김규홍 사무국장
- 2001년 제4대 전영우 회장, 원종배·박민정 간사
- 2003년 제5대 박중세 회장, 원종배·박민정 간사
- 2005년 제6대 최만린 회장 김규홍 사무총장, 원종배·박민정 운영위원
-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등록
- 2009년 제7대 김동건 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 2015년 제8대 임국희 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여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상과 현실과는 차이가 많지만...

원종배 아나운서는 김동건 회장은 사람을 남자, 여자, 아나운서 셋으로 나눌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표현일 게다.

‘부모님이 네 부탁에 더 계시느냐며 경조사는 꼭 챙기라고 하셨고, 가끔씩 고문님들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녹화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택근 고문님의 장애인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즈음 사무실 문제가 대두되었다. 사단법인화 하면서 필자 개인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승인을 받았기에 방송회관 입성을 늘 꿈꿨다. SBS 손범규 아나운서가 아나운서협회장 때 드디어 협회와 클럽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사용보다는 우편물 처리 등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방송회관에 주소를 둔 것 또한 우리 아

나운서클럽의 꿈 하나를 이룬 것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 인생 50년 기념식,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현역과 협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풀어 가는데 거의 한 팀에서 할 일을 클럽 운영위원 몇이서... 드디어 해냈다!

다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김동건 아나운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그 때의 진행과정을 다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억 여섯:

마이크에 실려 날아가 버리는 무형의 직업 아나운서-이제 신문을 만들어 모아보기로 했다.

협회보 제작을 처음 제안한 이해옥 선배님, 적극 지지해 주신 김규홍 부회장님, 지금은 제주에 내려가신 정경래 선배님, 빼놓을 수 없는 황인우 편집장, 카메라로 클럽의 면면을 담아내는 이형균 회원, 그리고 필자가 미력하나마 지금까지 회보를 발간한 것이 5주년을 맞는다. 그 사이 교정까지 빈틈없는 황량 선배님과 교육학박사 출신 채영신 회



강영숙

최계환

전응덕

원이 합류했고, 출중한 능력의 유지현 회원이 힘을 보태기로 해 마음 든든하다.

미주에서 적극적으로 반가움의 글을 보내오고, 대학에서 받아봤다는 한 방송학자는 퇴직 후 집에서 받길 원하는 등 그 밖의 개개인의 요청에 책임과 보람을 느낀다.

회보 발간에는 참 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5주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회원 여러분이 내주시는 연회비를 기반으로, 회장 재임 시 광고를 도맡아 해결해주신 김동건 고문님을 비롯한 황우겸 고문님, 최평용 선배님, 박영웅 선배님, 박찬숙 부회장님, 황인우 편집장, 임국희 회장님, 성선경 부회장님의 광고 협찬, 김인숙 대선배님을 비롯한 KBS 원로 여자 아나운서님들처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후원금을 쾌척해주신 회원들, 또한 멋진 제호를 써주시고 신년회호도 보내 주신 우전 맹관영 선배님, 매회 ‘발음 이야기’를 게재해주시는 이규향 선배님, 아나운서들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클럽회보 PDF 파일도 게재해주시는 <춘추동방> 이상춘 운영자님, 지난 회보를 들여다보니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아름다운 현역 아나운서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선배가 있기에 후배가, 후배 아나운서 여러분이 있기에 (사) 한국아나운서클럽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아나운서 선·후배의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일곱, 여덟 : 등등

머리를 스쳐가는 미처 언급하지 못한 고마운 선배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기억의 문을 닫는다.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을 실천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뵈 때마다 떠오른다.

참 순수한 사람들 - 아나운서.



방송회관 사무실에서 작업 중인 초창기 편집위원들 (왼쪽부터 정경래 이해옥 김규홍 황인우 박민정 이형균)